

“무엇이 제일 오래 썩지 않죠?”

사찰생태연구소, 어린이와 함께 망월사 겨울숲 관찰



‘어린이 생태문화교실’ 현장



흔적 찾기 놀이하며 환경의 소중함 이해
 ‘생활신’ 주제로 범문 듣고 다도체험도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니 이해가 빨라요’



망월사 주지 구전 스님이 주지실에서 참가자들에게 다도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 왼쪽). 망월사 대웅전에서 예불하고 있는 송의진(7살)·김민주(7살) 어린이.



린이들에게 설명했다.

이 어린이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목이 마른데 왜 이 산에는 물이 없지요?” “새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저귀죠?” “저 나무는 아까 시아가 났나요? 아까시가 났나요?” 등등. 다 듣고 보니 얼른 답이 쉽지 않은 물음들이었다. 숲 해설가답게 거침없이 정씨가 답했다. “도봉산에는 물이 귀하답니다. 저 멀리 산 정상 근대군데에 하얀 바위들이 보이지요. 저게 바로 화강암인데 이런 지형에는 마사토가 많이 붙어 잘 빠져 물이 아주 귀하답니다.” 정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새들은 봄이 오기 전 이 시기가 되면 각자 짝꿍을 찾기 위해 지저귀죠.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지저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의 정답은 아까시가 맞아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까시아는 주로 숲의 입구에 많이 자생하고 있어요.”

망월사 1km 넘겨둔 산 중턱, 가파른 산길을 올라온 어린이들이 지쳐 짜증 섞인 불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왔다. 이를 눈치 챈 정씨는 베테랑 안내자답게 즉석에서 게임을 제안했다. “자, 지금부터 흔적 찾기 놀이를 하겠습니다. 사립과 새, 나무의 흔적들을 빨리 보자기에 답이 오세요.” 정씨의 작전(?)은 성공이었다. 좀 전까지 파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아이들의 눈에 생기가 들었다. 5분이 지나자 사람의 흔적인 검종이, 새의 흔적인 깃털, 나무의 흔적인 나뭇가지 등이 각각의 보자기 위에 수북히 쌓여 모아졌다. 정씨는 말문을 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안 썩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검종이요.” “에 맞아요. 사람의 흔적이 제일 오래 썩지 않는답니다. 특히 1회용 컵과 찻시는 50년도 넘게 안썩는다고 하니 1회용 물품은 가능한 쓰지 마시죠. 알았죠?” “예”

우뚱우뚱 솟은 바위 봉우리들 속에 안겨 있는 듯 자리 잡은 망월사에 도착한 일행은 절의 풍광에 매료되기 도 잠시, 범당

에서 망월사 주지 구전 스님에게 ‘생활신’을 주제로 범문을 들었다. 구전 스님이 “우리 어린이들은 뭐 좋아해요?”라고 묻자 “그림 그리는 거요” “노래 부르는 거요” 등등 거침없는 어린이들의 대답이 이어졌다.

구전 스님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요?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선이예요. 지루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것. 바로 이런 집중된 힘에 의해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 설명하자 어린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범문이 끝나자 구전 스님의 안내로 주지실에서 다도체험이 있었다. 다관에 차를 우려내는 스님의 모습이 신기한지 어린이 들은 스님 앞으로 바짝 다가와 앉아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다도시범을 관람했다. 모두들 스님이 건네준 차가 맛있다고 할뻔 웃음을 지었다.

망월사 경내를 둘러보는 것으로 첫 생태문화체험을 끝낸 참가자들은 하산길에 생태 기행의 소감을 다양하게 쏟아냈다. “망월사는 차가 올라가지 못해 음식물을 스님들이 직접 지게로 옮기는 것이 안타까웠어요(박소영 · 의정부 중앙초등 6년)”, “올라가는 데는 힘들었지만 시멘트 도로를 깔아 놓지 않아 오염이 덜 된 것 같아 좋았습니(박주하 · 의정부 중앙초등 6년)”, “산에 이렇게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줄 몰랐어요(최재웅 · 중계 중앙초등 5년)”, “스님이 차(차)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해요(송의진 · 7살) 등등.

망월사 주변 숲의 생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어린이 참가자들.

하니 까 이해가 빠른 것 같다”며 “환경 교육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강의실에서 하기 보다는 현장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사찰생태연구소는 3월 24일에는 북한산성과 중흥사지에서, 4월 28일에는 소오산과 자제암에서, 5월 26일에는 종묘와 창경궁에서 어린이 생태문화교실을 진행한다.

글=김주원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금강약돌 심폐 온열조끼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장부의 혈액에 온열 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며, 거드름이에 모인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후 갑상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액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 심·폐의 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 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생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속성, 자정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합니다.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열(氣募穴)과 기유열(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순환시켜 거드름이로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제거합니다.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로 동시에 열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거드름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갑상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열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